

곡성 부패방지 시책 '우수'

곡성군은 최근 전남도가 실시한 '2018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 결과(50%)와 전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50%)를 합산해 평가했다.

곡성군은 권익위 평가에서 3등급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지만 전남도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광양시와 영광군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다.

곡성군은 이번 결과를 군민 행복지수 1위를 위한 청렴도 향상에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연초 전 직원 청렴 결의대회와 청렴 서약을 시작으로, 감사팀 주관 청렴교육 및 매월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또 청렴 홍보물 배부, 청렴신문고 운영, 청렴 확산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고흥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상'

고흥은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2018 지역복지사업 평가 합동 시상식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마련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조기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고흥군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해 포상금 2,000만 원을 받았다.

고흥군은 전 읍면맞춤형복지시설 설치 이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마련을 위해 지난 6월 전 읍·면에 방문상담 전용차량 16대, 복지 경력자 읍·면장 배치, 복지 관련 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 읍·면에 복지차량을 배치하고, 자체 평가를 실시해 우수 읍·면에 시상금을 지원하는 등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호평을 받았다.

/동부취재본부=진종언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부 061 - 743-4200
- 여수 010-8648-1236
- 광양 010-3622-9898
- 순천 010-2547-7890
- 구례 010-5431-4006
- 곡성 010-6764-6100
- 고흥 010-9151-2828
- 보성 010-3601-2060

농협 보성군지부

군 직영업소 입육권 기부 논란

노약자 1시간 이동거리 외면 '정치적 생색내기' 비난 예산 출처도 불분명...민간업소 "불경기 영업손실 우려"

농협중앙회 보성군지부가 출처도 밝히지 않는 불분명한 예산으로 특정업체의 입육권을 대량 구매해 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히 시비가 일고 있다.

농협 보성군 지부는 지난 4일 율포해수농산물센터(이하 농차센터) 대중탕 입장권 3,500매(1,050만원 상당)를 장당 3,000원씩에 구매해 관내 불우이웃 및 소외계층 노인들을 위해 썬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보성군에 지정기탁했다.

하지만 이 업소는 보성군이 직영하는

업소로 정가의 50%도 안되는 싼 가격에 입육권을 구입해 다시 보성군에 기탁했다는 점과 사용 예산의 출처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는 것에 비춰볼 때 농민이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순수한 기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군민들의 시각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관내에서 불경기를 이기며 힘겹게 대중탕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자들은 막대한 영업피해가 예상된다며 농협의 생각 없는 처신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더욱이 농협이 기부한 입육권에 대해 보성군은 형평성을 고려해 12개 읍·면에 고루 배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농차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30분에서 1시간 이상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농협이 예산만 낭비했다"는 주민들의 불만소리가 나온다.

소외된 이웃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에 목적이 있다면서도 마땅한 운송대책이나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군이나 농협 측의 공식입장이어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혜택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특히 보성군 관내에는 무료 또는 유료

로 운영되는 대중탕이 12곳이나 있는데도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군이 유료로 직영하고 있는 해수농차탕의 입육권을 구매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부한 사실을 두고 상도외에 어긋날 뿐 아니라 효율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차센터와 100m 간격을 두고 많은 자본을 투자한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대중탕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여서 이 업소의 영업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차센터를 일반인이 이용할 경우 일만 7,000원(65세 이하) 보성군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6,000원을 받고 있는데 농협 보성군지부가 구입한 티켓은 유료 기간이나 사용자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우이웃을 위한다는 본 취지와는 달리 일반인들에게 할인 입육권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민간업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보성읍 송재로 A씨는 "농협이 지역 현실을 잘 알지 못하고 부적절한 사업을 채택해 예산만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산만 낭비했다는 주민들의 비난에 대해 농협은 "지부장 권한 내에서 농정단체장과 실무자들이 심도 있게 사업을 검토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사업 결정과정 및 예산에 대해서는 "묻는 사람이 사심이 있다"는 궤변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 비난을 사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근중 기자



고흥 군민 하나되기 운동 선포식

고흥군은 최근 팔영체육관에서 송귀근 군수, 송우섭 군의장, 황주홍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사회단체와 군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 하나되기 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고흥군 제공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내년 말 완공

국비 100억 확보...연결공사 15년만에 결실

남해안 관광벨트 연계 국제 해양 명소 기대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해상교량 사업이 내년말 완공 될 것으로 보여 양 지역간 교통교류 및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기대된다.

여수-고흥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 사업은 당초 2020년 마무리 계획이었지만, 예산난으로 지연 돼오다 내년도 국비 예산에 남은 예산이 전액 반영되면서 1년 앞당겨 개통할 수 있게 됐다.

12일 주승용 부의장실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화양~적금연륙·연도교 가설 예산을 90억만 세웠지만,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추가예산 100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04년 적금대교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여수-고흥간 연결공사는 15년만에 결실을 맺게 돼,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된 국제해양관광명소 개발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사업 외에도 여수와 고흥을 연결할 관련 도로 공사들도 속속 완공을 눈앞에 두면서 남해안권의 획기적인 도로지형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여수 화양~나진간 등 2개 지구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화양-소라간 국지도는 2009년 화양~나진, 나진-소라간 2개 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돼 10여년만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연장 21.6km 구간으로 3,000억 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와 함께 여수-고흥간 다리를 포함해 전남 동남권역 일반국도 해상교량 유지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특수교 관리센터 여수사무소 신축공사도 내년 마무리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순천 신청사 건립 시민 공청회 개최

내년 1월 부지 선정

순천시내 내년 1월 신청사 부지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12일 순천시에서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오후 청내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건립을 위한 마지막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신청사 후보지인 동측, 남서측, 북측 등 3곳에 대해 시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들의 질의를 받았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전문가 발제 시간을 최소화 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이뤄지도록 했다.

광주대 부동산학과 김향집 교수는

"신청사 건립은 원도심 도시재생을 강화하고 도시재생활성화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도 신청사 건립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교통문제에 대한 예리한 질문이 이어졌다.

장천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신청사는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신청사 건립에 대한 방향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임종필 정원산업과장은 "시민을 위한 공공성이 가미된 생태계 숲터 조성 등 후계를 목표로 건립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순천시는 다음달 말까지 공무원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 초 건립부지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근중·조기철 기자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 문화재 등록

지붕 목조트러스·출입구 구조 보존 가치 인정

광양시는 최근 '구 진월면사무소'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 제739호로 등록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는 1956년 7월 7일 건축된 소규모 관공서 건물로 면적은 151.97㎡(중축부분 제외)이다.

특히 지붕의 목조트러스 구조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주출입구 부분을 조형적으로 처리한 독특한 입면 구성을 보이는 등 근 현대건축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됐다.

문화재청에서는 '구 진월면사무소'

의 문화재 등록을 위해 지난 9월 문화재 관계전문가 초청 현지조사와 2018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9차 회의를 거쳐 지난 10월부터 문화재 등록예고를 실시했다.

장천동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문화재 등록을 계기로 원형에서 벗어나 변형된 부분은 철거한 고증을 통해 보수 정비하겠다"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19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를 문화재청에 신청하는 등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한 역사문화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정경화 기자

클릭! 고향 소식



남양면 사랑의 김치나눔 봉사

고흥군 남양면 신영식 면장과 새마을부녀회 회원 50여명은 지난 8일부터 3일간 '군민 하나 되기를 위한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회원들은 사랑의 김치 약 200포기 담귀 마을(34개) 회관과 독거노인,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신영식 남양면장은 "앞으로도 면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하게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진종언 기자



보성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개최

보성군은 최근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올해 추진해 온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영관 부군수는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에 힘쓰겠다"며 "지역사회의 다정한 시선, 따뜻한 손길, 사랑스런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근중 기자



여수 김장배추 사주기 행사

여수시는 최근 ㈜남해화학과 여천농협이 참여해 가운데 김장배추 사주기 및 사랑의 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남해화학은 김장용 배추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200만 원 상당의 김장배추를 구입했다.

배추는 사회복지시설과 홀몸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 했으며, 여천농협은 배추 운반차량을 지원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순천 해룡면 사랑의 쌀 200포기탁

순천시 해룡면 농민회원으로 구성된 따·정·모(따뜻한 정 나누는 모임)회는 최근 관내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해룡면에 쌀 200포기를 기부했다.

따·정·모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200포 이상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양정길 해룡면장은 "따·정·모의 기부를 계기로 추운겨울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기부문화가 많이 확산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